# 요인회전을 하는 이유

요인 적재값 자체로는 변수 간 상하관계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요인분석 후에 요인회전을 통해 요인 적재값이 큰 경우에는 더 확대하여 1에 가깝게 하고, 요인 적재값이 작은 경우에는 0에 가깝게 하여 변수를 명확히 구분한다. 요인회전은 상관계수를 의미하는 요인 적재값을 통해 차원을 축소한다.

요인 적재값을 이용한 회전 방법에는 직각회전과 사각회전이 있다. 직각회전과 사각회전은 회전을 통해 명확한 관계를 파악한다는 점에서 언뜻 같아 보이지만, 회전을 실시하는 기본가정이 서로 완전히 다르며, 결과 또한 다르게 출력되므로 연구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  |  |  |
| --- | --- | --- |
| **회전 방법** | **종류** | **설명** |
| 직각회전  (orthogonal rotation) | 베리맥스  (Verimax) | \* 요인 간 독립성을 유지하여 회전한다. 즉 상관관계가 없다. (사회과학에서는 요인 간 상관관계가 0인 경우는 드믈지만 (상관계수)=0을 가정한다.)  \* 결과가 간단하게 나와서 해석하기가 쉽다. |
| 쿼티맥스  (Quartimax) |
| 이퀴맥스  (Equilmax) |
| 사각회전  (oblique rotation) | 직접 오블리민  (Oblimin) | \* 요인 간 연관관계를 유지하여 회전한다. 즉 상관관계가 전혀 없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사회과학에서는 요인간 상관관계가 0인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상관계수) != 0 을 가정한다.)  \* 결과가 복잡하게 나와서 해석하기 어렵다. |
| 프로맥스  (Promax) |